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수십 년만의 무더위에 전력 부족까지 겹쳐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시느라 수고로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도리를 떠올리며 잘 이겨내셨으리라 믿습니다.

9월에 들면서 이제 바람도 시원해지고, 농사를 서두른 곳에서는 햇곡식을 거두며 부르는 풍년가 소리도 들려오고, 며칠 후면 우리 겨레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추석을 맞아 귀한 책 두 권으로 여러분과 작은 정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단의 귀중한 전통문화와 성보문화재 연구에 일가를 이루고 있는 흥선스님의 『일 줄이고, 마음 고요히』는 1년 4계절 바람 불고 꽃 피고, 눈 내리고 구름 피어나는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옛 한시를 골라 번역하고 스님의 감흥을 붙인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에 담긴 시의 맛에 빠지고 스님의 감동에 젖어들다 보면,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달그림자 우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리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함께 보내드리는『마음 살림 - 큰스님 27인이 전하는 마음을 살리는 지혜』는 종교전문 기자인 저자가 이 시대의 큰 스승 27분을 만나,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덜그럭 덜그럭 소란한 우리네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길'을 청해 들은 '지혜의 그릇'입니다.

스물일곱 분의 가르침 중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저는 특히 "더울 때는 더워야 하는 것이 계절의 진실인 거여. 여름에 더워야 알곡이 영글고, 여름에 땀을 흘리는 만큼 결실이 알찬 거지"라고 하신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밭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 처럼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추석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